

가고시마현청 다언어 정보지 「가고시마 남쪽바람소식」 (vol.160)

[○최신 정보○](#)

●아마미오시마, 도쿠노시마, 오키나와 섬 북부 및 이리오모테지마 섬의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결정되었습니다●

[○국제교류원 칼럼○](#)

●국제교류는 친구 만들기다●

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도 지아한 (싱가포르 출신)

[○가고시마 국제교류 A - Z○](#)

●다카타 로버트 주일 도미니카 공화국 대사가 현청을 예방하였습니다●

[○관광 가고시마 제철 정보○](#)

●아름다운 산과 바다에 잠든 전설의 보물을 찾아라!●

[○편집 후기 & 【모집】 가고시마에 관한 화제○](#)

○최신 정보○

●아마미오시마, 도쿠노시마, 오키나와 섬 북부 및 이리오모테지마 섬의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결정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 44 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아마미오시마, 도쿠노시마, 오키나와 섬 북부 및 이리오모테지마 섬」의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십수 년에 걸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가고시마현과 함께 힘써 주신 중앙 정부, 오키나와현, 시정촌, 관계 단체 및 지역 주민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력들이 이룬 쾌거이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등재는 아마미오시마, 도쿠노시마를 포함한 4 개의 섬이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고유종으로 대표되는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중요한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 유지, 자연 환경의 보전과 이용의 양립, 아마미의 아름다운 자연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분위기의 고취, 정보 전달 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 공식 홈페이지 <https://amamiokinawa.jp/>



---

○국제교류원 칼럼○

---

●국제교류는 친구 만들기다●

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도 지아한 (싱가포르 출신)

모두의 인생에서 시간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친구를 만들 것인지가 문제다. 어떤 사람은 폭넓게 많은 지인을 만든다. 그러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 현지인과 친구가 되며, 누군가 말을 걸어와도 바로 상냥하게 이야기를 나누고는 한다. 이 사람은 미래에도 모두와 사이 좋게 지내고 있을 테니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하며, 얇은 관계의 경우에는 피곤한 사이가 되어 버린다. 어떤 사람은 신중하게 적은 친구를 만든다. 그러한 사람은 친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에는 더디다. 이렇게 결실 있는 관계를 키워 온 사람은 미래에 의지할 친구가 있어 든든할 것이다. 하지만 인간관계가 좁으면 불편함도 많을 것이며, 행여 친구와 사이라도 멀어질 경우에는 긴 시간을 공들인 관계가 안타깝게 되어 버린다.

물론 위에서 말한 두 종류의 사람은 극단적인 예다. 많은 사람들은 중도의 길을 선택한다. 폭넓게 관계를 맺는 사람도 어떻게 더 깊은 관계를 만들 것인가를 노력할 것이다. 또한, 깊게 관계를 맺는 사람도 친구가 될 새로운 누군가를 찾을 것이다.

국가와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르지만, 지난 2 년간의 국제교류 업무를 통해 국제교류와 친구 만들기에는 공통점이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 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와 국가는 관계를 맺으며, 거기에 드는 돈과 시간도 한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 관계의 깊음과 폭넓음 등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어느 쪽이 정답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옛날부터 친구였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우정을 유지하겠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세계가 변하고 있다. 국가는 발전하고 사람은 성장한다. 우정도 예외가 아니다. 「옛날의 두 사람」보다 「지금의 두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항상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는 두 사람은 분명히 보다 견고한 관계를 만들 것이다.

(귀국 소감)

대학 시절, 3 년간 주 6 시간밖에 공부하지 않은 일본어 실력으로 외국에 와서 제 인생 첫 사회 생활을 하며 그야말로 전례 없는 팬데믹을 경험하였습니다. 저한테는 그러한 역경을 이겨 낼 능력이 없어 변변히 가고시마의 국제교류에 공헌할 수 없음에 낙담하고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상황이 심각해질수록 사람의 본성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짧다고는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가고시마의 옥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 때 만난 따뜻한 사람은 평생의 친구가 될 수 있다. 다행히 그러한 사람은 가고시마에 많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 가고시마에 와서 행복했습니다.

저는 25살부터 27살까지 인생의 황금기인 지난 2년간을 가고시마에서 보냈습니다. 가고시마는 제 정체성의 일부이며, 앞으로도 가고시마와의 연을 소중히 키워 나가고 싶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가고시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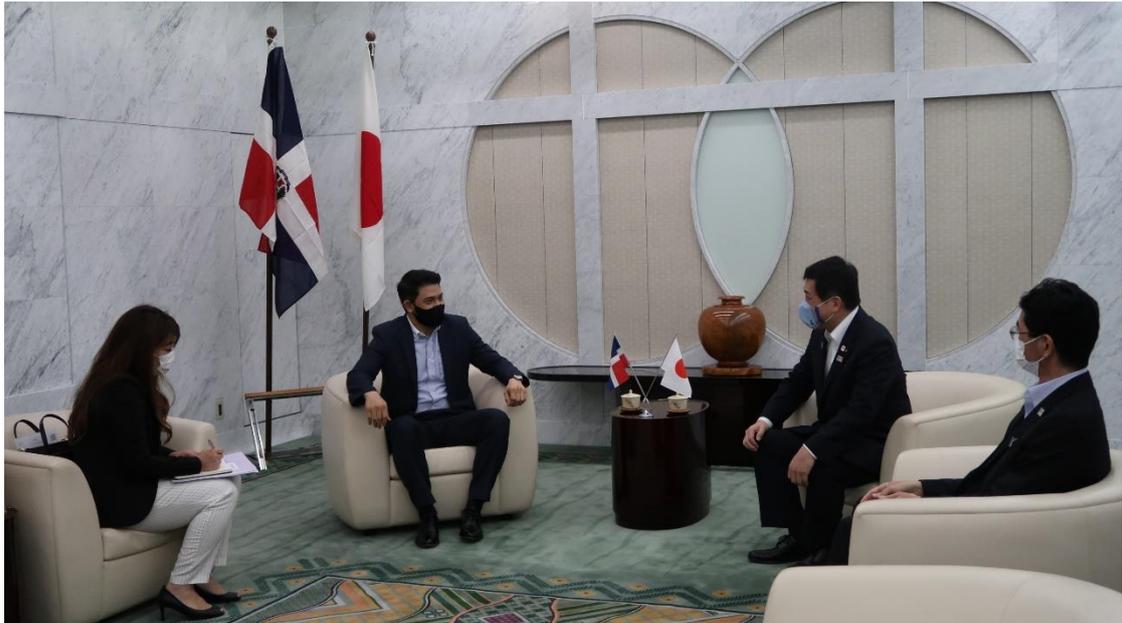
---

○가고시마 국제교류 A - Z○

---

●다카타 로버트 주일 도미니카 공화국 대사가 현청을 예방하였습니다●

다카타 로버트 주일 도미니카 공화국 대사가 현청을 예방하였습니다.



다카타 대사의 조부모님은 미나미큐슈시 에이초(穎娃町) 출신으로 예방 전날에는 처음으로 이곳을 방문하여 친척과의 만남을 가진 후,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 성묘를 하였습니다.

지사는 다카타 대사의 조부모님을 비롯한 도미니카 공화국의 일본인 이민자들이 오늘날 도미니카 공화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높은 평가를 얻고 있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면 해외기술연수원 수용 사업 등을 통해 더 많은 교류를 펼쳐 나가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고시마와 도미니카 공화국의 교류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관광 가고시마 제철 정보○

●아름다운 산과 바다에 잠든 전설의 보물을 찾아라!●

팸플릿(보물 지도)에 그려진 수수께끼를 풀어 보물 상자 패널의 숨겨진 장소를 찾는 이벤트입니다. 보물 패널은 이부스키·미나미큐슈 각 1곳, 오스미 4곳, 페리 승강장 2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물 패널에는 발견 암호가 적혀 있으며, 이 암호를 팸플릿에 기입하여 보물 발견을 보고하세요! 발견한 패널의 개수에 따라 추첨을 통해 인기 게임기 및 호텔 숙박권, 지역 특산품 등을 드립니다.

팸플릿은 도로 휴게소나 이벤트 실시 구역 내 관광 시설, 초등학교 등에서 배부합니다.

※ 참가 방법 등의 상세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https://bouken-works.co.jp/event/quest-imo/>

美しき海と山に眠る伝説のお宝を探せ!

CREATED BY BOUKEN WORKS

**宝探しクエスト**  
TREASURE HUNT QUEST

《 in 指宿・南九州、大隅 》

《開催期間》  
2021 7.21 ▶ 9.30

《開催場所》  
鹿児島県  
指宿市・南九州市  
・大隅地域

参加無料

このイベントは宝の地図の謎を解き、宝箱を探し出す謎解き宝探しゲームです。

主催：いぶすき地域観光推進協議会・大隅地域観光推進協議会 後援：国・県・観光振興機構  
企画制作：株式会社 BOUKEN WORKS  
お問い合わせ：鹿児島県観光課 0994-24-3113 (内線：193) (土日祝日を除く 9:00～17:00)

<https://bouken-works.co.jp/event/quest-imo/>



앞으로도 저희 가고시마현청 메일 매거진은 가고시마와 여러분을 연결하는 정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집자 일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고시마 남쪽바람소식 게시판」에서는 가고시마에 관한 화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 및 게재합니다.

#### 1. 가고시마 포토 갤러리

가고시마만의 매력이 담긴 사진이나 해외에서 발견한 가고시마의 사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더미처럼 쌓인 화산재 봉투)

#### 2. 가고시마 생활의 지혜

가고시마의 생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 주십시오. (예: 사쓰마아게를 맛있게 먹는 법, 화산재 대처법)

이 밖에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할 여러분의 다양한 정보를 기다립니다.

▲▽▲▽ 기사 제공 및 문의처 ▲▽▲▽

일본 가고시마현 관광 · 문화스포츠부 국제교류과

〒 890-8577 가고시마시 가모이케 신마치 10-1

TEL: +81-99-286-2306

FAX: +81-99-286-5522

↓전자메일 주소

영 어 : [cir1@pref.kagoshima.lg.jp](mailto:cir1@pref.kagoshima.lg.jp)

중국어 : [cir2@pref.kagoshima.lg.jp](mailto:cir2@pref.kagoshima.lg.jp)

한국어 : [cir3@pref.kagoshima.lg.jp](mailto:cir3@pref.kagoshima.lg.jp)

일본어 : [minami@pref.kagoshima.lg.jp](mailto:minami@pref.kagoshima.lg.jp)

본 기사의 저작권은 가고시마현에 있습니다. 무단게재와 불법복사를 금합니다.